



부릉부릉 자산배분: 강재현의 이 차트가 왜 이럴까?

터키 리라화 이슈, 지금보단 하반기가 문제

글로벌주식전략 강재현

02-3787-2188

jhkang@hms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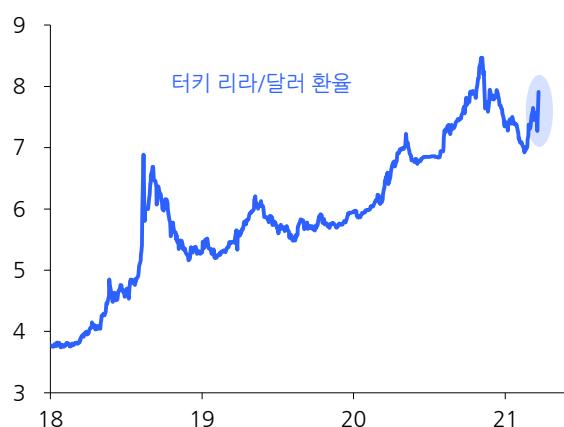
터키 리라화 폭락, 당장 큰 문제는 아니나 3분기 신흥국 경제 뇌관 될 수 있어…

22일 터키 리라화가 급락했다. 나지 아발 중앙은행 총재가 해임되고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의 사합 카브즈오을루 전 의원이 후임으로 임명된 탓이었다. 아발 총재는 작년 코로나 위기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속절 없이 떨어지는 리라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어렵게 금리인상을 단행해 왔다. 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은 개의치 않고 꾸준히 금리인하를 주장해 왔고 아발의 후임으로 임명된 인물은 이와 의견을 같이 하는 여당 소속이니 시장은 리라화 가치 하락에 베팅할 수 밖에 없었다. 만일 후임 총재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향에 대한 스탠스를 비추게 되면 리라/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환경 속에서 중앙은행 정책까지 리라화 가치 하락을 야기한다면 조만간 터키의 대외부채 상환 리스크가 화두가 될 수 있다. 현재 터키 대외부채는 GDP 대비 236%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신흥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다.

다행히 신흥국 경기 개선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라화 폭락이 신흥국의 전체적인 통화가치나 하이일드 스프레드를 흔들지는 못하고 있다. 2Q 미국 인프라 투자에 따른 spill-over 효과도 기대하고 있어 당장 터키 이슈가 신흥국의 부채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3Q 달러 상승 압력이 심화되고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강도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 터키가 신흥국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림1] 22일 터키 리라화 가치 폭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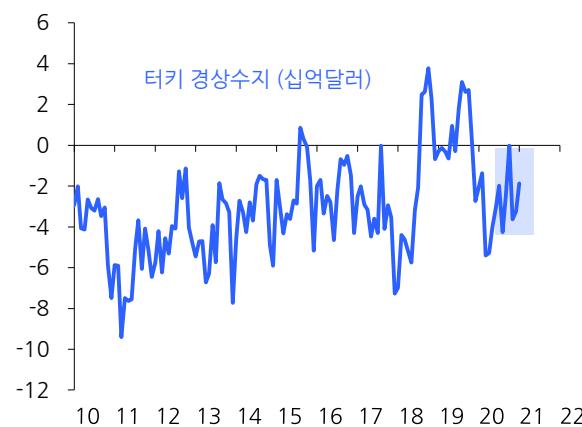
금리인상 주도해 온 중앙은행 총재 경질이 주 원인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2] 그렇지 않아도 경상수지는 적자 상태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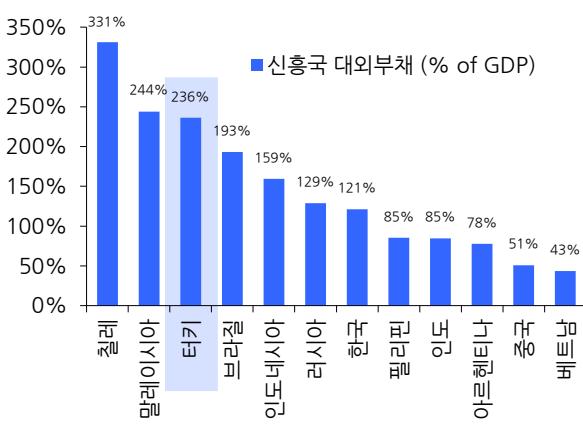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터키 경상수지는 적자 지속



자료: Refinitiv, 현대차증권

[그림3] 리라화 하락 압력 지속시 대외부채 상환 리스크↑

터키 대외부채는 GDP 대비 236% 수준으로 신흥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편



자료: Bloomberg, Refinitiv, 현대차증권

[그림4] 당장 신흥국 리스크로 비화되는 않겠으나…

2Q 신흥국 경기 회복으로 터키 이슈가 신흥국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으나 3Q 리스크 확대될 수 있음



자료: Refinitiv,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강재현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